

무이마을 주거환경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for Housing Environment in 'Moo-Yee Ma-Yul'

○ 정 준 현* · 백 영 흠**

Jeong, Jun Hyun · Baek, Yeong Houm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organization for the private house and housing environment of an old village 'Moo-Yee Ma-Yul', Sun-san, KyungBuk, Korea.

This village has sheltered since 5~600 years ago and is located geometrical on the buffer area between Southen and Northen area of South Korea, and is composed by two types of housing form; one is southen type and the other Northen. The housing was definded on scale with the ecinomical basement, and is changing rapidly on the quality of its environments such as the city-life housing style with the recently increasing income.

The surveying time on the site was october 25th-30th and June 21st-22nd, 1996

1. 서론

민가의 형태, 구조, 재료 등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속성이며, 문화지역 구분의 기본요소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민가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조차 오늘날 주거환경의 급속한 변모와 함께 전통적인 민가의 형태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전통적인 마을의 공간구조도 변모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 관주도적인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주민의 자의적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종래의 지역문화의 속성이 상실된채 획일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산군 무이마을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이 지역의 민가 유형과 주거환경의 구성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선산군 무이(武夷)마을은 약 5~600년의 역사성을 지닌 마을이며, 지리적으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접이지대(漸移地帶)에 속한다. 그로인해 이 마을은 남부와 북부의 민가형태가 함께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신분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민가의 규모가 제한적인 빈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호당 소득이 증대되면서 주거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민속적 분야는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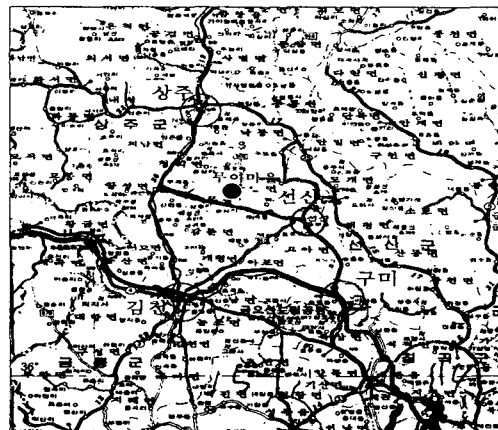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역의 위치

* 정희원, 대구대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대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실정이나 농악¹⁾이 전승되고 있어 이를 통해 주민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제 조건에 비추어 무이마을을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1996년 7월21일과 22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6년 8월25-30일까지 실측조사 및 사진 촬영, 면담조사 등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무이마을의 형성배경과 공간구성적 특성

2-1. 마을의 형성배경

선산군 무이마을(무곡)이 하나의 유기적 생활환경 체로써 형성된 배경을 자연지리적, 인문사회적, 생활경제적, 민속문화적 요소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연 지리적 배경으로서 이 마을은 해발 437M의 원통산²⁾을 뒤로 하여 그 둘러싸인 산자락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그림 2). 이 마을의 지명은 수동 혹은 물골이라고도 한다. 이는 원통산에 약수터가 있어 매일 동일한 수량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나, 그후 마을의 경치가 중국 복건성에 있는 무이구곡(武夷九曲³⁾)에 비유된다하여 무이리(武夷里)라 칭하였다 한다.

다음, 인문사회적 배경⁴⁾으로서, 이 마을은 서기 1,400년경 연안전씨가 마을을 개척하였으나, 지금은 연안전씨, 해평황씨, 경주최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남원양씨, 김해김씨 등의 각성으로 구성된 100여호 규모⁵⁾의 마을이다.

그리고 마을에는 성암(性庵) 전좌명(田佐命)을 배향하던 무등서원이 효종원년(1649)에 세워졌으나, 고종5년(1868)에 회철되고, 성암제(性庵齋)를 마을 중앙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마을어귀에는 성암 전좌명(1424~1521)의 효행을 기리는 정여각을 두어 효행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⁶⁾에 힘입어 마을 회관건립(1973)을 비롯하여, 마을 앞의 상보들 경지정리(1977), 무이양수장 건립(1981), 마을 안길포장(1988), 무이교 가설(1989), 마을진입로 확장포장(1990) 등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주거환경은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말해 그 지역의 전체환경 속에서 생

활에 유효한 환경면적은 마을의 규모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의 규모 및 생활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무이마을은 대부분이 농가이며, 농가당 경작규모는 1ha 내외인 영세농가⁷⁾가 대부분이다. 경작지는 마을안의 '안들'과 마을 밖 대천을 끼고 있는 '상보들'의 벼농사가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참외농사와 축산이 장려되고 있고, 또한 인근의 논공단지⁸⁾에 근무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 증대는 최근의 주거환경 변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민속문화적 배경으로서, 무이마을은 전통적 민속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며, 이는 곧 생활속에 용해되어 있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이러한 민속내용과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의식적으로만 남아 있다. 그 예로 마을 앞 당나무에서 '웃마'와 '아랫마'가 공동으로 동제를 엄숙히 올렸으나, 6-7년전에 당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러한 동제는 사라지고 주민들 의식속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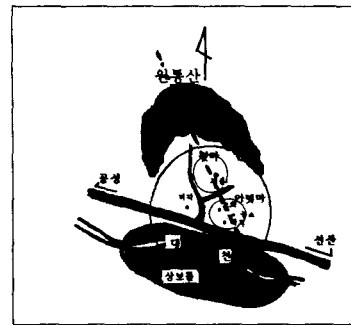


그림 2. 마을의 지리적 형국

2) 원통산(怨痛山:일명 元通山)의 명칭은 임진왜란때 이곳에 성을 쌓고 싸울 준비를 갖추었으나 원통하게도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였다 하여 원통산이라고 하였으며, 현재도 성의 옛모습이 조금 남아 있다.

3) 중국 복건성 충안현에 있는 무이산의 아홉구비 계곡의 경치를 노래한 송나라 주희(朱熹)의 구곡가(九曲歌)

4) 옛부터 "조선인재 반재영남, 영남인재 반재일선"이라 하여 선산지역은 선비가 많은 고장으로 칭송되어 왔으며, 이때 선비 혹은 인재는 단순히 문장이 뛰어난 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금력 등에 굴하지 않고 절의를 지킨분들을 뜻한다. '일선'은 '선산'의 옛지명이다. 「一善志」,1983

5)1995년 「선산통계연보」에 의하면, 무이마을의 인구는 99세대, 353명으로 집계되었다.

6)경상북도, 경북 마을誌, 1991. 778-779쪽.

7)선산군민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1.35ha로 집계되어 있다.(구미시,선산통계연보,1995.)

1) 특히 '무의 농악'은 '96 민속경연대회 농악분야에서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남아 있다. 또한 개별적인 가신신앙을 비롯한 민속적 내용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례를 위해 '윗마'와 '아랫마'가 함께 상포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마을의 공간적 특성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전형은 대개 집촌형태의 동성부락으로 입향조의 정주에 의해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 즉, 그 지역의 가장 높고 밝은 지역이나 중심에 종가가 자리잡게 되고 점차로 후손이 성장함에 따라 작은종가 또는 상민등의 위계적 서열로 계층화되면서 하나의 마을공간이 형성된다.

그러나 무이마을은 종가를 중심으로한 반촌의 위계적 질서보다는 지리적 공간성에 따라 비교적 비구조적 질서로 구성되어있다. 다시말해, 마을안의 개울을 경계로 '윗마'와 '아랫마'로 영역화되어지며, '아랫마'를 '새마을'로 칭함을 볼때, 마을형성의 시기에 따라 마을공간의 영역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윗마'는 성암재가 공간적 중심성을 띠는 반면, '아랫마'는 학교와 교회 및 공소가 공간적 중심성을 띠고 있어, 마을구성이 공간적으로 양분화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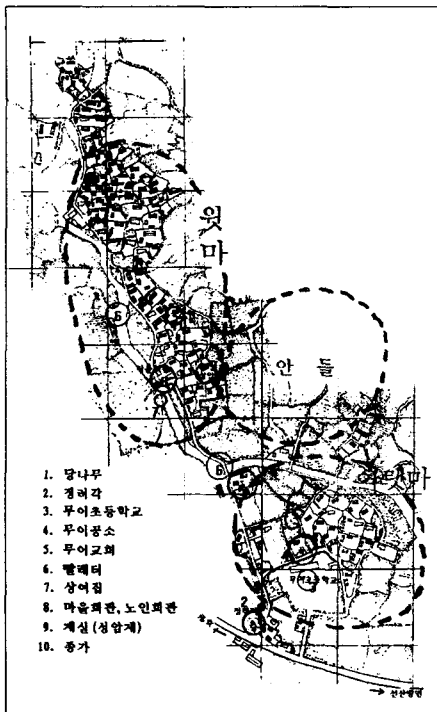


그림3. 무이마을의 공간구성

3.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성

3-1. 주거공간의 배치

일반적으로 가옥의 배치는 그 영향요건이 자연환경에 따른 대응, 생활내용, 내·외부생활의 공간활용, Privacy유지, 경제적 규모 및 필요한 건물의 동수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가의 배치는 좌향을 중요시 하였다. 좌향은 그 건축물을 집터에 앉힘으로써 생기는 건축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향이 결정된다.

무이마을 민가의 배치는 안채를 마을의 축에 따라 동남향으로 배치하고, 아랫채와 부속채를 두는 경우는 별동형으로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⁸⁾. 그리고 아랫채를 마련할 형편이 안될 경우는 안채에 방 1칸이 늘어난다. 아랫채는 보통 3칸 규모로 방, 마구, 두지로 구성되며, 방은 주로 양잠용으로 이용되었다. 이 마을에 유일한 한채의 'ㄱ'자형 주택은 20여년 전에 아랫채를 못세울 형편이어서 방한칸을 달아낸 경우라 한다.

그림 4는 이 마을에서의 대표적인 배치유형이다. 아랫마을의 공소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넓은 대지위에 안채와 사랑채가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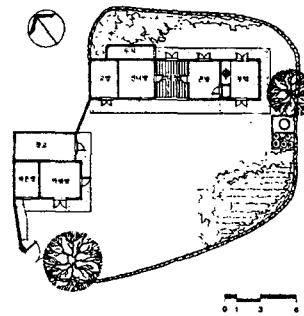


그림 4. 배치형태의 예(황진규씨 덕)

3-2. 민가유형의 분포

경상북도 민가의 평면유형은 북부지역에서는 까치구멍집계열의 겹집형의 분포가 절대 우세하나 중부지

8) 마을 이장에 의하면, "아랫채를 서쪽에 두지 않고 동쪽으로 두어서 해를 입은 본보기가 요즘도 아랫채나 부속채를 지을 때는 신중을 기한다"고 하였다. 이는 '동쪽에 있는 대장군을 막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민속적 내용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반겹집, 퇴간집, 홑집 등 여러 형태의 평면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며 남부로 내려오면 점차 홑집의 분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무이마을은 전형적인 민촌인 까닭에 체실인 성암채만 골기와집일 뿐, 민가는 모두가 흙벽돌로 지은 토담집이었다. 지붕은 원래 모두가 초가지붕이었으나 현재 초가는 한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골슬레이트나 왜식기와로 개량되었다.

민가의 평면은 아랫채나 부속채로 사용되는 겹집 계열의 2채와 후대에 건립된 ㄱ자형 한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자형의 홑집계열이었다.

평면 유형⁹⁾은 퇴마루나 대청이 없는 집, 봉당만 있는 집, 봉당이 대청으로 구성된 집, 퇴마루가 발생한 집, 퇴마루와 대청이 혼합된 집 등 여러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5).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남북으로는 경북의 중부지역이면서 동서로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북부와 남부, 낙동강 동안과 서안의 완충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 마을의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도투마리집이 더러 발견되고 있는 점인데, 북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겹집 계열의 도투마리집과는 달리 홑집의 도투마리집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 한 점이다.

과거 이 마을은 강수량¹⁰⁾도 적고 수리시설도 좋지 않았다. 따라서 구미공단, 공성공단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대부분의 주택들은 전통적인 토담집의 형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어 지면서 현재 이 마을도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현대식 주택들이 건립되었거나 건립중에 있는 상태이다.

3-3. 평면유형별 공간구성의 특성

본 절에서는 이 마을의 민가의 평면유형중 대표적인, 특징적인 평면형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김선배 가옥

이 주택은 130-7번지인 마을 어귀의 비각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담장 없이 도로변에 동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얇은 토기단위에 흙벽돌로 벽체를 세운 후 3량가의 가구를 얹고 골슬레이트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부엌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둔 도투마리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의 도투마리집은 주로 겹집의 형태인데 비해 이 집은 홑집의 도투마리집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한 평면이다. 이외에도 도투마리집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평면이 몇채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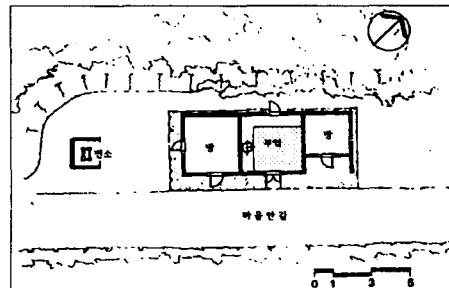


그림 6. 김선배씨택 평면도

(2) 이음전 가옥

이 주택은 마을 안쪽 372번지에 위치한 것으로 보

평면유형	평 면 예	분포	
홑집	'—'자형	무퇴형	10 (11.0)
		봉당형	5 (5.5)
		전퇴형	7 (7.7)
		대청형	36 (39.6)
		혼합형	16 (17.6)
'ㄱ'자형	대청형	1 (1.0)	
겹집	봉당형	아랫채 (2예)	
현대주택	개량형	(3예)	
	조립형	(2예)	
	양옥형	(11예)	
계		91 (100)	

그림 5. 평면유형의 분포

9) 민가의 평면형태 분류는 대개 지역적 분류, 평면형상적 분류,간의 구성형태에 따른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0) 최근 이지역의 년평균 기온은 13℃이며, 강수량은 년평균 52.4mm임을 미루어 볼때, 당시 적은 강수량은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아 이 마을에서 원형적인 민가의 형태로 추정되어진다. 현재 지붕은 슬레이트로 개량되어 있으나 원래는 초가지붕의 토담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작은방, 큰방, 부엌, 두지가 연결되어 있다. 우측의 두지는 반간 규모인데 전면은 등그스럼하게 다듬었으며 현재는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다.

좌측방의 전면에는 봉당을 두었는데 봉당의 바닥은 온돌방의 높이만큼 흙을 쌓았다. 봉당의 주위에는 동쪽으로 트인 쪽을 제외한 3면을 토벽으로 쌓았으며 마당을 향한쪽에는 창을 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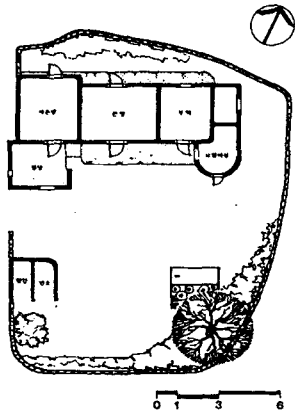


그림 7. 이음전씨택 평면도

(3) 전이명 가옥

동쪽들의 건너편 73번지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4채의 가옥 중 하나이다. 이 가옥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초가지집인데 현재는 비닐로 지붕을 덮어둔 상태이다. 가옥의 주위에는 흙벽돌로 담장을 쌓아 공간을 구획하였는데 마당 앞쪽에는 담장에 붙여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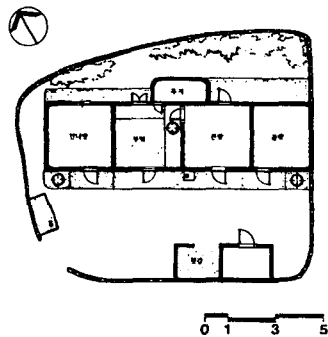


그림 8. 전이명씨택 평면도

시 흙벽돌로 쌓아 만든 2칸 규모의 헛간채를 두었다. 안채는 흙벽돌로 지은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토담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건너방 부엌, 큰방, 골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부엌과 큰방의 후면에는 작은 두지를 시설하였다. 부엌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방을 둔 형태의 집을 도투마리집이라 하는데, 이 집은 도투마리집의 평면에서 우측에 방이 한칸 더 붙은 도투마리집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평면이다.

(4) 남정분 가옥

서쪽 도로변에서 우측으로 난 골목의 모서리 부분인 37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골목쪽으로 트인 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에 안채가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좌측의 도로변에는 아랫채를 두어 전체적으로는 7자형의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채의 평면은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좌, 우에 방 한칸씩을 두었는데 좌, 우의 방들은 반간 가량을 뒤로 물리고 전면에는 봉당을 두었다.

3량가의 토담집인데 지붕은 원래 초가였으나 현재는 골슬레이트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아랫채는 고방 1칸과 아랫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방의 전면이 길모퉁이에 위치한 관계로 전면을 등그스럼하게 만들었음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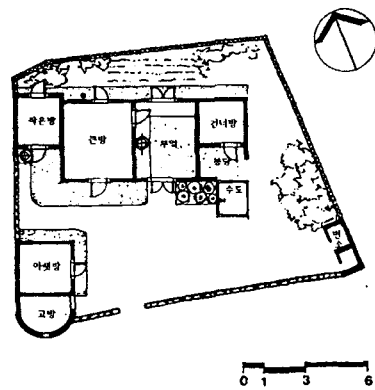


그림 9. 남정분씨택 평면도

(5) 양팔임 가옥

332번지에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대지위에 동향한 안채를 중심으로 하여 좌, 우로 두지채와 아랫채가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좌로부터 부엌, 안방, 봉당, 건너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엌을 제외한 3간의 전면에는 퇴는 없이 퇴주만 세워 퇴간을 형성하였다. 좌측의 두지채는 온돌방 1칸과 두지 1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좌측방에는 할머니가 거처하고 있으며 우측의 아랫채는 잠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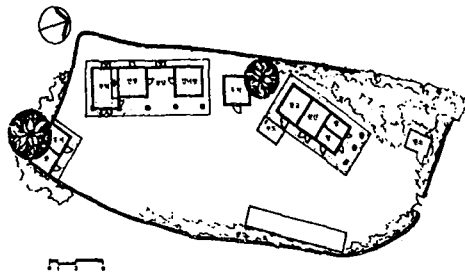


그림 10. 양팔임씨택 평면도

(6) 황진일 가옥

이 주택은 33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마을의 이장택이다.

안채는 4칸 규모의 일자형 홑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부엌, 큰방, 마루, 작은방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엌 상부에는 다락을 설치하였으며, 안방의 전면에는 좁은 퇴간을 두고 전면에는 4짝 미서기 유리창문을 설치하였다. 대청 상부에는 시렁을 설치하여 물건을 올려놓게 하였는데 현재 시렁상부에는 성주단지 올려 놓았다. 그리고 아랫채는 현대식 주택으로 건립하였 일상생활은 그곳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사는 안채의 안방에서 모신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 마을의 주거환경변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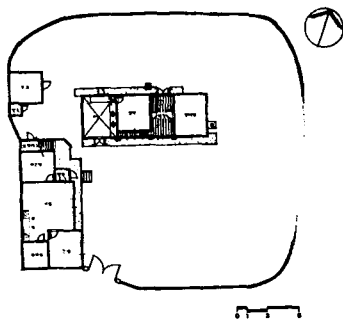


그림 12. 황진일택 평면도

4. 결론

선산군 무이마을의 주거환경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의 형성은 자연지리적 조건, 생활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었으며, 일부 민속적 내용도 주거환경적 구성적 요소로 작용한 듯하다.

2) 마을의 공간구성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리적 형국이며, '윗마'와 '아랫마'로 공간적 구분이 된다. 마을 형성은 마을 윗쪽에서 입구쪽으로 발전되었으며, '윗마'는 성암재인 재실이, '아랫마'는 학교,공소,교회 등 공간적 중심성을 띄고 있다.

3) 주거공간의 배치는 안채를 마을의 향인 동남향으로 배치하고 아랫채와 부속채를 두는 경우는 별동형으로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4) 평면 유형은 퇴마루나 대청이 없는 집, 봉당만 있는 집, 봉당이 대청으로 구성된 집, 퇴마루가 발생한 집, 퇴마루와 대청이 혼합된 집 등 여러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도토마리집의 변형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남북으로는 경북의 중부지역이면서 동서로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북부와 남부, 낙동강 동안과 서안의 완충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으로 이 지역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민가의 다양한 유형분포를 보이나 이러한 민가의 형태는 점차 소멸 내지 변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변화의 방향이 주목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1) 선산군, 일선지, 1983
- 2) 구미시, 선산통계연보, 1995
- 3) 경상북도, 경북마을지, 778-779쪽
- 4) 강봉진, 한국건축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소고,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대한건축학회, 1975.
- 5)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6)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1981.
- 7)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8) 백영희의 15인, 낙동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1995